

## 세상의 빛

(요 8:9-12)

박 치 덕

(서울 은강교회 담임목사)

세상에는 도저히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있다. 빛과 어두움이 그렇다. 빛과 어두움은 반대 개념인데도 또한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계인 것이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알 수가 있고,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되심을 강조했다. 요한복음 1:1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는 구절이 많다(1:4-9, 3:19, 21, 5:35, 8:12, 9:5, 11:9-10, 12:35-46). 요한 서신인 요한일서 1:5-7, 2:8-10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빛이 이 밤같은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 어두움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빛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

본문 앞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의 판결을 구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여 그 판결대로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고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죄가 미웠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미웠던 것이다. 음행에 관한 모세의 율법(레 20:10)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 했다. 그런데 이들은 음행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남자는 놓아 주고 여자만 끌고 와서는 둘로 치라는 모세 율법을 적용할 여부를 묻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어이 예수님을 울무로 엮어낼 수 있을 줄 자신 만만했다. 모세의 율법대로 둘로 치라 하면 로마 형법에 저촉이 되고, 로마의 법을 존중하여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법에 저촉이 되므로 어느 함정에라

도 빠질 것이라는 자신이다. 소위 양도론법의 난제 앞에서 예수님은 대답에 궁한 낭패한듯한 모습으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셨다. 그들은 짓궂은 표정으로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다. 구약에는 죽이기로 판결된 죄인을 꿰어앉히고 그 죄를 증거하는 증인이 큰 돌을 들어 치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돌로 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다. 그 말씀 앞에 양심에 가책을 받은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가고 최후에는 그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하시니 “없나이다.”고 대답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그 빛의 사역을 생각해 보자.

### 1. 빛은 죄를 드러낸다

세상에는 모순된 일이 많다. 의인으로 자처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죄인으로 자처하는 의인이 있다.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의인일 수가 없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남보다 악한 죄인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영적으로 소경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니 의인으로 알고 있고, 비록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는 항상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 음행 중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그들은, 죄인은 불쌍한 그 여자이고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는 의인으로 알고 범죄한 여자를 내세워 예수님을 들볶았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다.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꿈쩍하지 못하고 슬금 슬금 다 달아나고 말았다. 빛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들의 죄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불신자들이 신자의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밤낮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배당과 인접한 곳은 집 값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님과 가까이할수록 더 많은 죄가 발견된다. 그러므로 신앙이 깊을수록 겸손해진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큰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어두움의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일수록 회개가 철저하고 과오가 많은 사람일수록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함보다 겸손히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고 했다.

## 2. 빛은 죄를 용서한다

여기 불쌍한 이 여인은 꼭 죽는 줄 알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자기를 정죄하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빛은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용서한다. 그 드러내는 목적이 벌 주기 위함이 아니고 용서하기 위함이다.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목적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함인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시고 드러내시는 것은 사유하시기 위함이다. 죄를 그대로 숨겨 두고 적당히 넘기시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어 용서하신다.

인간 세계에서 죄를 추궁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이다. 법관이 죄를 찾는 것은 벌하기 위함이고, 경쟁자가 허물을 찾는 것은 상대방을 매장하기 위함이고 혹은 자기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결점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목적은 그렇지 않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여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고 하셨다. 사탄의 이름은 여러 가지이다. “살인자” “거짓말장이”(요 8:44), “큰 용” “옛 뱀” “온 천하를 피는자”(계 12:7)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2:10에는 “우리를 참소하던 자”라고 했다. 즉 고소인이라는 말이다. 법정으로 하면 검사의 역할이다. 법정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장이 있고, 피의자 즉 죄인이 있고, 죄상을 캐는 검사가 있고,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피고이며,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은 검사이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우리를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가 있는데 그는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 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신 권위있는 변호사요 아무도 항거할 수 없는 힘있는 변호사이다. 로마서 8:33-34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고 했다.

### 3. 빛은 죄를 소멸한다

빛에는 드러내는 광명이 있는 동시에 태우는 열이 있다. 히브리서 12:29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고 했다. 이사야 6:6에 보면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은 제단에서 취한 바 핀 숯불로 정하게 되었다. 빛은 죄를 드러내어 용서하지만, 용서뿐 아니고 죄 자체를 태워 없앤다. 그것이 완전한 사죄이다. 가령 어떤 채무자가 그의 채권자에게 호감을 사서 탕감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 후에 채권자의 마음이 변해서 다시 차용증서를 내놓고 빛을 갚으라고 다그치면 별수없이 갚아야 된다. 제대로 하려면 채주는 채무자가 보는 앞에서 차용증서를 찢어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변덕스러운 채권자와 같이 용서해 주고도 마음이 변할 때 다시 추궁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고 차용증서를 불태워 없애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용서인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사죄의 표현만 해도 매우 다양하다.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깨끗하게”(사 1:18), “뺨뺨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안개의 사라짐 같이 하시고”(사 44:2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시 103:12),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시고”(사 38:17),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미 7:19),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시 79:8, 사 43:25, 64:9). 인간계에서는, 즉 사람들은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리지는 못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 600만 이상을 학살한 독일에 대해서 “용서는 해 준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은 잘 잊어버리지만 남의 잘못은 좀처럼 잊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태워 없이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주님께서서는 모세의 율법이 죽음에 합당한 죄라고 정죄하고 양심이 정죄하는 그 무서운 죄인인 그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가 흘릴 십자가의 피를 담보로 하시고 사죄의 선언을 하신 것이다.

우리는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 받았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용서하시고, 용서뿐 아니고 태워 소멸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진노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결한 생활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